

## 제 5 강 언어와 세계

### ◆ 1교시 베르그손

#### ▲ 인문과학의 대상, 언어학의 대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언어에 관련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이야기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수사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철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뭐를, 언어의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수사학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을 예를 들었던 것을 예를 들자면 수사란 것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인간이 말을 할 때, 잠재적인 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에서 뒤나미스(Dynamis)라는 말로 표현이 됐었던, 우리가 말을 하도록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은 저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테크네(techne)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체계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사학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배웠을 때 일정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느냐, 물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제도권 안에서의 'Disciplin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학제 안에서의 어떤 한 부분.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수사학의 탄생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그리스 시대의 어느 어느 시점에 탄생했다는 표현에서 쓰는 그 말은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로 언어와 수사가 뭐가 다를까요? 물론 언어가 더 큰 범위겠지요.

광범위한 의미로 언어는 쓰는 거고, 그 안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야기를, 오늘도 더 이야기가 차근차근 나오겠지만, 언어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언어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대상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대상을 어떤 것을 잡는 거냐에 따라 다양한 학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소쉬르가 했던 것이고, 소쉬르는 A, B, C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이런 특정한 부분을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자.”라고 해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20세기 현대적인 의미에서 언어학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어학이 그때 탄생했다면, ‘그 이전에는 언어가 없었냐?’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언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언어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언어학이 없었더라도 언어는 있었던 거고.

그러면 언어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을 하는 경우하고 인문과학을 하는 경우하고 큰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의사소통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한 통일된 언어를 쓰고, 통일된 지식 체계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뭔가가 발견되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면 새로운 발표하는 사실이 나오면, 물론 도덕적인 어떤, 지난번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죠?

도덕적인 큰 하자만 없다면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다들 수공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자연과학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인문과학계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어떤 무엇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또 논쟁이 붙고 싸우고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우리는 ‘학문의 대상이 뭐냐?’하는 문제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학문을 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반면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무지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모두가 같이 열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학문 안에서 쓰는 일정한 기호 체계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고,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고, 가능하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자가 어느 정도는 자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인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언어에다가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서 언어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각자가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언어관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국어라든가 언어의 구사 능력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문법적인 걸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가 다 문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설

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분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위치에 놓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베르그송의 경우에도 똑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미지, 불어로는 이마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경우도 모든 것이 이마주일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테이블도 이마주고 책상, 테이블, 의자, 그리고 노트, 전부 이마주지만 나도 이마주고, 사람도 이마주잖아요. 그런데 나라고하는 이마주는 특별한 이마주잖아요.

### ▲ 주체와 대상의 일치에서 출발하는 인문과학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말했던 존재라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existence한다는 그런 그것은 특별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 있는, 현존한다는 것은 주체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나의 존재도 인식을 하고 다른 존재도 인식을 하는, 다른 존재들은 나의 존재, 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는 대상이 바로 주체라는 거지요.

주체와 대상이 일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안에서 출발하니까 어느 것을 우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하느냐, 어느 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 ▲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형적 구조

그래서 이제 그게 내재적으로 이미 뭐라고 할까요,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물론 칸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요. 범주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내 안에 선형적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선형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지요. 빈 공간이지만, 채워져 있지 않는 거지만, 선형적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도 선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시 인간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 때도 언어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언어학이라는 것이 ‘언어(言語)’와 ‘학(學)’ 두 가지가 붙은 말이잖아요.

사회학, 자연학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을 관념화시킨다는 것이고, 결국 언어를 가지고 묘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문과학 어느 무엇보다도 언어학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대상과 실체가 한 몸 안에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언어를 언어로 언어화시킨다는 거, 사회를 언어화시키는 것이 사회학이라면, 언어를 언어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개념, 개념화시킨다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 ▲ 베르그송의 독특한 사상세계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차원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식을 한다는 것이 뭐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소여(所與)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개 없는 직접적인 어떤 그, 주어진 것이다. 소여다. 아니면 매개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뭔가가 전달해 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거의 학제적인, 이념적인 대립까지도 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베르그송의 경우에도 당시에 그런 학문을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하고 그랬던 당시에는 상대적인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철학이었던 거지요.

물론 지금도 서구의 철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르그송이란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계보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독특한 유심론이라고 하는 프랑스 특유의 어떤 그런 학파라고.....

그런 것들은 학파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특이한 경향, 그 안에 우리가 범주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철학사 안에서 특별한 어떤 계보에 넣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지요.

베르그송의 본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교육, 성장 과정 그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연 과학에 대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철학자가 되었지만,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이 과학자가 되도록 권유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실제로 본인의 스스로의 철학에 당시의 과학에서 나온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소화하면서, 물론 당시 과학자

들과 논쟁도 있었지만 그렇게 철학이 만들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적인 철학 사조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유물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독일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이 당대에 굉장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작용을 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프랑스의 특정 대학이 일방적으로 모든 과가 다 우리나라처럼 세다든가 그런 구조가 아니고, 모두가 국립대학교고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들어가듯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자기가 사는 곳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라 비슷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마다의 학풍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어요.

소르본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이 학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학교지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당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독일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칸트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판 철학, 관념론 이런 것들이 헤겔 류 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기 때문에 베르그송의 철학이 소르본느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죠.

## ▲ 이미지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당시의 학문 배경이 그랬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베르그송의 반박 형식의, 직관 형식으로 주어진 소여들에 대한 방점이 찍혔던 그런 것이지요. 언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지라든가 주어진 이미지로서의 인식, 그런 의미로서의 표상, 이런 것들을 언어와 함께 결부를 시켰을 때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라요.

물론 베르그송도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전체적인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보았을 때, 언어의 형성, 언어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어를 설명할 때, 베르그송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이미지의 구성, 이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관념을 형성하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베르그송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지각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자연과학에서 발견된 많은, 다양한 사실들을 갖고 설명을 해서 신경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전달하는, 일단은 밖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전달되는 그런 신경 체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뇌로 신경계를 따라서 들어오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뇌에서 다시 정보를 신경계에 전달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운동 기관으로 전달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행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자연 과학에서 발견된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일단 신경계라든가 뇌에 관련된 연구 같은 것들은 인문 과학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그런 분야이고, 자연 과학에서 발견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되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전기와 같은 자극을 주고 전기, 전자 제품도 똑같은 거잖아요. 일정한 자극을 줘 가지고,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왜 이미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빛의 파장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이미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빛, 파장의 정도, 얼마큼 밀도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의 다른 변형 형태일 뿐이지, 일종의 부대 현상이다.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색깔이란 건 없지요. 빛의 파장일 뿐이잖아요. 빛의 파장만 있는 것이지 색깔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 같은 경우에 흰색이다, 검은 색이다, 이런 것들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지,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색깔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설명이 되었든 간에, 과거의 철학의 전개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둘 중의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모든 것을 물리적인, 어떤 그 빛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굴절이 되고 아니면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고, 그래서 반사를 완전히 시키면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굴절이 되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고, 모든 그런 설명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합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것이 관념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인식의 뭐라고 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 Gnosis와 aesthetikos의 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일단 이미지하고 신체의 관계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자는 말이지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옛날에도 과거 철학에서 보면 주체와 객체. 이 두 관계를 일직선상에 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객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소화를 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게 주체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주체와 객체를 그런 한 일렬로 놓은 선 위에 놓고서 거기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하고 받아지는 것으로 관계를 놓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도 역시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주체인데 동시에 대상이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이 된다는 이런 식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과연 주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객체를 받아들이는 종점, 종착역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노시스(gnosis) 그노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같이 정립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요즘 말로는, 요즘 쓰는 표현 안에서는 에스테틱(aesthetic)이라고 하는 것이 미적인,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이것도 역시 희랍어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에스테티카(aesthetica)라고 했을 때는 라틴어고, 에스테티코스(aesthetikos)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말이 요즘 영어에서의 에스테틱(aesthetic)도 되고, 요즘은 미학을 학문명도 aesthetics라고도 표현하지요.

그 외에도 미용, 성형 이야기할 때도 에스테틱이라는 말하고, 뭔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beautiful하고 관계되는 말로 지금은 사용을 하지만, 본래의 에스테티코스라는 말은 반드시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아름답다고 하는 심미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감각적’인, 내가 뭘 느낀다는 그런 용어이지요.

그러니까 ‘추하다’,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다는 감각어로서 ‘차갑다’, 손의 온도에 따라서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아니면 눈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고, 빛이 안 들어오면 캄캄하다든가, 다양하게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혀로도 느낄 수 있고, 귀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감각을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을 에스테티코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에스테티코스과 그노시스를 구별해서 쓴다면 이제 어떤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 감각의 차원이예요. 정보를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난시간에도 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감각 기

관을 통해서 피부라든가 눈이라든가 귀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이마주화시켜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단계에서의 생물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물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툭 건드리면 반응을 해요. 분명 느낀다는 거지요. 건드리면 오므라든다든가, 원생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 다시 말하면 감각 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감각 기관이 작동을 한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은 물리학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물리학적이다’, ‘심리학적이다’ 이런 말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를 정확하게 찍을 수 없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을 신의 영역이라고 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르네상스 이후로의 사고잖아요. 육체는 칼을 댈 수가 있지만 정신에다가는 칼을 댈 수가 없지요. 일단 거기다 칼을 댄다는 것이 모르고, 무섭고. 뭐가 보여야 칼을 대지요. 무엇을 알아야 칼을 대지요.

잘 모르겠는 영역, 신의 영역 반면에 정확하게 국지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 손으로 딱 찍을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물리적인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서양에서 접두어로 a를 붙이면 ‘반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게 감각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아네스테틱anaesthetik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감각적인 기관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의 목적이 아닌 인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병리학은 치료 목적이 아닌, 작동하는 기계가 ‘왜 작동을 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로서 생성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단지 손을 혹은 다른 물건을 툭 건드리면 느껴지는 어떤 것이지요. 느껴지는 것은 고등동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감각을 자극을 했을 때,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것, 중추신경이 없는 동물들도 그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차원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보로서, 물론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메모리로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처음 보는 물건도 분명 우리가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고, 처음 보는 거다, 과거에 봤던 대상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는 거지, 오브제화시킨다는 것이지, 차이점이 없는 거지요.

### ▲ 그노시스는 대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

그노시스를 만든다는 그런 것은 무엇이나면 하나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단순히 뇌에 전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오브젝트,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요. 그노시스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마치 자동차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아닌 이상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주어진 것을 우리가 쓰는 것뿐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망가져 봐야 아는 거죠.

자동차가 망가져 보면, 그 부분을 그런 작동을 하는 거구나, 이게 망가지면 이게 작동이 안 되겠구나. 바로 그런 방법으로 임상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노시스에다 앞에다 'a'를 붙이면 '아그노시스(agnosis)'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보이는 보여요.

제가 예를 들었었죠. '길다'는 형태도 보이고, 그리고 색깔도 보여요. 파란색, 흰색도 다 보여요. 단단한 것도 보이고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지요.

물론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기억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길고 파란색이고 약간 투명한 뭔가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직후에 기억이 그렇게 짧게 없어지지 않는 않잖아요.

바로 직후에 물어보았을 때 또 알 수 있어야 해요. 또 안 돼요.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여러 정보가 취합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요.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지요.

### ▲ 구별능력과 구성능력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의 논리, 퀄리티(quality)로서의 논리하고 퀀티티(quantity)로서의 논리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흰색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빨간색이 아니라는 정보죠.

그 다음에 “길다.”라고 하면, “둥그랗다.”라는 것의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구성물로서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 그것도 하나의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로서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지각을 만드는 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주로 과거의 독일에서 “게슈탈트 학파”라고 있었지요. 게슈탈트 학파에서 주로 이런 관계를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심리학에서는 그런 게슈탈트 이론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게슈탈트라는 말도 독일어인데 게슈탈트라고 쓰는 이유가 번역이 잘 안 돼요.

한국말도 그렇고 같은 서양어끼리도 영어나 불어도 기타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고 굳이 한다면 영어의 폼(for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영어의 폼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게슈탈트라고 해버리고 번역을 하지 않고 게슈탈트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오브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많이 이야기될 수가 있는 거지요.

### ▲ 그노시스에서 전이과정으로의 이행이 진행되어야 인식이 가능해 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오브제를 형성을 한다면 그것이 지각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노시스의 차원으로 그냥 가만히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언어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인 인식을 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점이 앞에 현존하는 현상으로서의 보이는 그것으로서의 그것만을 우리가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그런 것인데 왜 현상학에서는 반대로 갈까요?

아까 베르그송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특정 사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직전에 혹은 원래 인간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 현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상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상학적인 반동이 나왔던 이유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지 않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예로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밖을

보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흔들거리는 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나무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실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느낄 수가 없고, 촉각도, 청각도 느낄 수가 없고, 단지 시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시각적으로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 나무가 왔다 갔다 하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바람 부는구나!’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왜 오버하냐?” 이런 거지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바람이 분다고 오버를 하냐? 이런 거죠.

제가 쉽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상학적인 반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현상학적인 반동이 나왔다는 것은 ‘왜 그것이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해석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인식을 한다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낳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 대상이 있지요. 대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대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노시스에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것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시각만 가지고도 가능하죠. 시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아까 공간감이라든가 색깔 혹은 ‘단단하다’ 등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노시스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상, 객체 그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대상1이 대상2로, 어떤 전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요.

#### ▲ 전이과정에서의 ‘대상’의 범주

물론 여기에서의 대상1, 대상2라고 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객체라고 하는 것, 용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하늘, 바람 이런 실체를 가지고 명사화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실체만은 아니죠.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사태도 포함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20세기 철학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실체 중심의 철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20세기 철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의 모든 인식을 한다는 건, 인식의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죠.

인식을 한다는 것은 항상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것, 다시 말해 사태라고 하는 것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대상이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실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시 말하면 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특정한 사태를 우리가 지각을 한다는 것. 그러면 특정한 사태는 다른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지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을 봤을 때, 떠오르는 다른 게 있잖아요. 상당수의 기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기호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기호화시키는 것, 물론 아티피컬(artificial),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세미오틱스(semiotics),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기호학이다 뭐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물로서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자연 안에서도 기호화된 것들이 많아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예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물만 보고 가만히 있는 고등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혹은 그것이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학습이 없다면 불가능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습을 통해서 더 쌓일 수 있는 것은 있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학습이 거기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을 보면서 다른 사물을 연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요.

#### ▲ 상징 과정 - 현상에서 표상까지

아까 ‘나무가 흔들린다.’ 하나의 사건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연상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항상 보면 이것을 상징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 무엇 하나가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면 그 현상만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표상까지 같이 얻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상이 현상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상까지 이끌어낸다는 것, 표상화시

킨다는 것, 그게 바로 상징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그노시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에스테티코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바탕이지요.

이것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오브제로서 취합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대상1)이 하나죠. 그노시스죠, 그렇지만 이 하나의 대상은 현상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대상2)도 역시 그노시스 맞아요. 또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도 고등 동물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읽는다는 차원이 끝이 아니지요. 이미지를 읽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상징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표상, 리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이라고 하잖아요. 표상을 영어로, 다시 그것을 재현시킨다는 거지요.

또 다른 뭔가를 다시 이끌어낸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상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경우에 고등 동물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고등 동물이 개잖아요. 개를 데리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개한테 뭔가를 보여준다는가, 들려준다는가 하면 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을 얻어내요. 물론 학습 과정을 통해서죠. 학습 과정을 통해서지만, 학습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수가 적겠지요.

그렇지만 현상을 놓고서 표상화시키는 능력은 개들도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을 보이는, 이게 바로 그런 단계죠.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뭘 보여주면 바로.

#### ▲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언어 학습의 괴리

주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시각이지요. 시각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발달한 능력이니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의 차원에서는 시각이 가장 발달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야 할 언어의 차원에서는 청각이 가장 많이 쓰는, 사용되는 그런 전달 수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언어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는 시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청각으로 배우지요. 다른 이미지 상태로서의, 그노시스 상태로서의 정보 인식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정보 인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커서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중 국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모국어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다음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각에 의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각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배운 뒤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알파벳 문자를 주로 쓰는 언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이 시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각에 의존하게 되고 청각이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기에서 모순이 나오게 돼요. 시각과 청각 사이의 모순. 그러다보니 자꾸 시각에 의존하게 되고 시각을 막아 버리면 불안하지요. 외국어를 배울 때 책을 덮어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외국어 교육을 할 때, 책을 펴면 마음이 놓이고, 이런 게 그런 모순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어쨌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마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일 발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외의 다른 청각, 촉각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시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브젝트화시킬 수 있는, 청각으로도 촉각으로도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물로서 뿐만 아니라 사태로서의 오브제들도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노시스로 해서 하나의 지각된 현상을 가지고 또 다른 당장 앞에서 지각이든 현상이 아닌, 다른 지각의 대상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상징의 능력, 그것이 고등 동물 단계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상징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할까요.